

春에 지역 산업활동 ‘희비’ 갈렸다

광주 생산·출하·재고·소비·건설 하락세

전년 동월 대비 1.7% ↓ …전남은 3.8% ↑

‘봄(春)’을 맞이한 3월 광주·전남지역 간 산업활동 희비가 갈렸다. 광주는 산업활동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남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는 생산·출하·재고·소비·건설 등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남은 소비만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 의료정밀광학, 담배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줄었다.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전월 대비 5.7% 각각 감소했고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2.4% 각각 감소했다. 3월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7.1로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고 특히 백화점은 0.8% 줄었다.

광주지역 건설 수주액은 3천8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분의 경우 152.4% 증가한 반면에 민간 부문은 20.5%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 3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차 금속, 기계장비, 비금속 광물 등에서 줄었으나 전기가스업, 화학제품, 석유정제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6.4%, 전월 대비 4.5% 각각 늘었고 재고도 전년 동월 대비 7.5%, 전월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3월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는 88.5로 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으나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1조3천83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7.1%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분의 경우 지자체, 공기업의 수주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했고 민간 부문은 부동산 임대업, 석유화학 등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94.5% 증가했다. 한편, 2월 광주 광공업 생산지수는 76.6%로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 9.3% 각각 감소했다. 전남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생산지수가 87.0%로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대비 4.8% 각각 감소했다. /임후성 기자



광주은행,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기탁

광주은행은 지난 29일 2019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567매(2천만원 상당)를 구매해 광주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정기탁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체육 진흥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광주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은행은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후원은행으로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대내외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25일 1억원의 입장권을 구매함바 있으며, 광주은행 전 지점 객장에 ‘수리달이’ 인형을 전시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수리&달이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며 분위기 북돋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을 위한 외화 환전 부스와 이동점포를 운영해 광주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광주정진원, 비전·준법경영 선포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비전 및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의 비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각 사업부서들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한 이날 ‘비전 및 준법경영 선포식’은 전 임직원이 직접 서명한 서약서를 경영지원팀 박미정 수석과 콘텐츠개발팀 김준기 선임이 대표 선서했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준법 경영활동을 위해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전 임직원이 리스크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유치하고, 광주역 AR/VR 센터 구축 등 문화콘텐츠와 ICT, 그리고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2019년 예산 242억을 확보했다. /임후성 기자



‘제철 열대과일 맛보세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제철을 맞이한 동남아 열대과일을 홍보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인도 망고, 태국산 두리안, 베트남 용과를 5월2일부터 8일까지 판매한다. /연합뉴스

지역 소비자심리 다소 악화

광주·전남 4월 CCSI 102.7… 전월比 0.5p ↓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전달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30일 발표한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들의 현재생활형편 CSI는 9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나 생활형편전망 CSI는 97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 CSI와 소비지출전망 CSI는 98과 111로 지난달보다 각 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79로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나 향후경기전망 CSI는 87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취업기회전망 CSI는 91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금리수준전망 CSI는 108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는 132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주택가격전망 CSI는 96으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118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9일 광주·전남 600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562가구가 응답했다. 한편, CCSI는 각종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이다. 장기평균치(2003년부터 2016년까지)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인 소비자가 많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임후성 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오는 6월26일 취임…4년 단임

동림종합건설㈜ 공후식(사진) 대표이사가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30일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에 따르면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이날 개최된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표회원(109명)의 만장일치로 공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진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광주대를 졸업한 후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공 당선인은 오는 6월26일부터 4년 단임으로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공 당선인은 지난 1976년 건설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40년간 현장경력과 정도경영을 원칙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건설인이다. 2003년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윤리위원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제20대, 제21대 전남도회(2012~2019년) 감사를 역임했으며, 전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위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전남지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범죄예방 자문위원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 당선인은 이날 당선소감에서 “60년이 넘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의 회



장으로 선출돼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힘써달라는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든 열정과 경험을 바쳐 건설업계와 협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 소리와 반대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상응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협회, 회원 중심의 열린 협회,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2대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감사는 대한건설㈜ 노영삼 대표이사가 선출됐으며, 김영구 회장은 참석 대표회원의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에 이어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또 광주·전남 4년제 대학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대학생 13명에게 150만원씩 총 1천9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은성 기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